

## 소설신론

개정판

## 소설신문

초판 1쇄 발행 2004년 4월 30일  
초판 11쇄 발행 2022년 2월 28일  
개정판 1쇄 발행 2024년 12월 30일

지은이 조남현

펴낸곳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주소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도서주문 02-889-4424, 02-880-7995  
홈페이지 [www.snupress.com](http://www.snupress.com)  
페이스북 @snupress1947  
인스타그램 @snupress  
이메일 [snubook@snu.ac.kr](mailto:snubook@snu.ac.kr)  
출판등록 제15-3호

ISBN 978-89-521-3209-3 93800

© 조남현, 2024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개정판

# 소설신론

조남현 지음

小説  
新論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머리말

이 책은 1982년 9월에 출간되었던 『小説原論』과 2004년 4월에 간행되었던 『소설신문』의 연장선에 있다. 그리고 보니 꼭 40년 전에 나온 『小説原論』은 내 나이 30대 중반에 그야말로 의욕과 야심이 동력이 된 저서였고, 이제 70대 중반에 내놓는 『소설신문』(개정판)은 정전을 지향하고자 하는 소명의식이 가장 큰 집필 동기가 된 것이라고 하겠다. 『小説原論』은 너무 이른 나이에, 『소설신문』(개정판)은 너무 늦은 나이에 내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든다. 민망하기도 하다. 『小説原論』이 간행된 지 몇 년 지나면서, 또 『소설신문』이 간행된 지 몇 년 지나면서 앞으로 개정판 출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다 완성도가 높은 책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잠재의식으로 남았던 것이 아닌가 싶다.

『小説原論』이 간행되었던 1980년대에는 소설가들도 의욕적이고 활기에 찬 태도를 보여 주었다. 출판사들은 출판사들대로 독자들은 독자들대로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를 만들어 내었고, 지식사회에서도 동시대에 출간된 걸작들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여길 정도로 큰 호응을 보여주었다. 그에 비한다면 『소설신문』(개정판)이 간행되는 2020년대에는 정통 소설양식이 독자들의 무관심과 낮은 판매고, 지식사회의 냉대 등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 안타까움마저 든다.

『小説原論』은 해외이론의 수집과 소개에 힘썼고 『소설신문』에서는 이론을 살펴보는 자리에서 우리 현대소설의 용례를 많이 제시함으로써 거꾸로 이론을 검증해 보려고 하였다. 소설원론과 한국현대소설개론을 합쳐 놓은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한국소설에 대한 관심을 크게 늘리고자 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해외소설이론 또는 소설이론의 소개 쪽으로 기울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우리 현대소설을 인용하고 활용하며 모델로 삼고자 하는 태도를 계획적으로나 적극적으로 확립하지는 못했던 점을 『소설신문』을 내고도 아쉬워했다. 한국현대소설의 본질과 특질

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기운 적도 있으나 동서양 소설이론에 대한 오래된 관심도 떨칠 수가 없었다. 고심 끝에 책 제목을 『소설신론』(개정판)으로 결정했다.

『소설신론』이 ‘소설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일차적인 관심을, ‘한국 현대소설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이차적인 관심을 둔 것이라면, 개정판은 두 질문에 대한 답을 동시에 들려주려고 하는 데다 목표를 둔 것이라고 자임할 수 있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람한 후 ‘소설양식의 본질’과 ‘한국현대소설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저술의도가 크게 달라진 만큼 또 그에 따라 내용도 대폭 바뀐 만큼 책의 제목이나 차례를 어떻게 조정할까 고민도 많이 했다. 그런 결과 책의 제목은 그대로 두고, 차례는 『소설신론』에서의 10장 37절 체재를 허물고 대신 30장 체재로 재구성했다. 각 장의 제목을 작성하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았다. 몇 번을 다듬고 고쳤는지 모를 정도다.

한국현대소설에 대한 활용의지를 강화하는 가운데 『소설신론』(개정판)을 양적으로 늘리고 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수준에서 자제하게 만든 데는 줄져 『소설의 본질』(2018)의 공이 있다. 이 책의 전체 내용은 『소설신론』(개정판)에 부분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소설의 본질』에서도 우리 현대소설을 적지 않게 인용하기는 하였지만 소설양식의 본질이나 특질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한정했다.

『소설의 본질』은 『小説原論』과 『소설신론』을 쓰고 난 다음에 내 스스로 갖게 된, 또 일부 독자들이 지적했던 ‘주관성 약화’를 일시에 해결하려는 의도로 쓴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소설의 본질』에서 제시된 열아홉 가지 정의는 내가 평론가로서, 국문학자로서 수십 년간 공부하고 고심한 끝에 제시할 수 있었던 소산이다. ‘주관성 발휘’를 자제하는 기초에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소개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小説原論』과 『소설신론』이 딱딱하고 어렵다는 평가마저 들어오게 되었다.

소설이론을 통해 한국현대소설을 재조명하기도 하고 거꾸로 한국현대소설을 통해 소설이론을 검증해 보기도 했다. 同時啐啄의 이치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원래 소설에 대한 이론이나 원론은 흔히 우리가 고

전이나 명작이라고 부르는 소설작품들이 유능한 이론가의 도움을 받아 생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의 소설이론이나 원론을 받아들인 지 1세기가 넘어간 마당에 이제는 ‘소설이론은 서양의 명작이 낳는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에 통용될 만한 이론을 매개할 수 있는 한국소설이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小説原論』을 쓸 때의 신천지 탐사 기분은 『소설신론』에 와서는 한국 소설을 이론(theoria)이나 원론(poetics)에 기여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졌다. 『小説原論』에서 취했던 이론의 양적 확대의 태도는 『소설신론』에서는 이론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었다. 개정판에서는 이론의 질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러저러한 기회로 우수한 신작소설을 읽으면서 한국에서도 20세기와 21세기의 소설이 주제, 서술방법, 독자들의 호응도, 작가의 자의식 등의 면에서 확실히 달라졌다는 판단에 닿기도 한다. 허쉬(Eric Donald Hirsch)가 『해석의 목표(The Aims of Interpretation)』(1976)에서 1970년대 미국의 문학연구가 반합리주의(anti-rationalism), 유행심리(faddism), 극도의 상대주의(extreme relativism) 등과 같은 폐단을 보이는 것에 동료 일부가 분개했노라는 대목이 나온 것을 보았다.<sup>1</sup> 수십 년 전 미국 한구석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반합리주의, 유행심리, 극도의 상대주의 등과 같은 내용의 비판은 수학공식이나 과학적 법칙으로 드러나는 객관적 진리표현방식이 가능하지 않은 인문학의 분야에서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든 쉽게 들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폐단이 객관적 탐구를 끝까지 가로막거나 뒤틀어 버리는 데 있다.

이러한 폐단이 빚어지게 된 요인의 하나는 기본에 대한 공부가 약한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비평이든 학술논문이든 작가론이든 작품론이든 시대론이든 유파론이든 (한국)소설을 대상으로 한 글이 위의 폐

---

1 E. D. Hirsch, *The Aims of Interpretation*, Yale University Press, p. 13.

단을 한 가지라도 드러내고 있다면, 이는 바로 소설의 기본이나 근본에 대한 공부가 단단하지 못한 데서 연유한 것일 수 있다. 소설의 기본이나 근본에 대한 공부의 한 갈래는 고전이나 명작의 정독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들이 일반독자들 사이에서 보다 많이 읽히고 유통되는가 하면, 지식사회에서 보다 많이 활용되는 장이 열리는 데 이 책이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정판 출간의 기회를 주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과 의욕적으로 치밀하게 편집업무를 마무리해 준 김지선 편집 담당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린다.

2024년 12월

조남현

## 차례

### 머리말 •4

1장 중국의 소설인식론의 추이	•11
2장 조선조 소설관의 양면성	•36
3장 한국 근대의 소설관	•59
4장 소설의 본질	•78
5장 서양의 소설인식론의 추이	•89
6장 내러티브의 갈래	•129
7장 리얼리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153
8장 소설의 미래	•181
9장 서사구조론	•198
10장 시점과 화자	•207
11장 소설양식의 시공간론	•237
12장 동서양 소설유형론의 예시	•258
13장 한국의 주요 소설유형	•274
14장 주제와 제재	•290
15장 소설과 이데올로기	•308
16장 소설과 갈등이론	•334
17장 한국소설의 주요 모티프	•353
18장 상징성의 함의	•363
19장 작중인물의 존재방식	•376
20장 소설안팎의 인간유형론	•389

21장	인물창조의 방법	•411
22장	플롯의 비의	•417
23장	플롯의 종류	•429
24장	소설의 문체	•443
25장	한국소설문체의 선본	•453
26장	작가의 존재방식	•478
27장	한국현대작가의 특징	•488
28장	소설독자론	•497
29장	독자의 층위	•506
30장	소설연구방법론	•516

찾아보기		•535
------	--	------



고대중국에서 소설양식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논의는 제자백가 중심의 철학론에 포함되어 있었거나 주변에 있었다. 20세기 이전까지 중국의 소설양식은 오늘날의 소설양식 못지않게 다양하고 복잡한 나머지 그 정체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였지만, 소설본질론과 소설효능론이 철학론의 한 형식으로 출발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노신(魯迅, 1881~1936)의 『중국소설사략』(1923)과 마찬가지로 방정요(方正耀)의 『중국소설비평사략』(1990)도 ‘소설(小說)’이란 말이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장주(莊周, B.C. 369~289)의 『장자』라고 하였다. 잡편 외물 제 26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무릇 작은 낚시대에 가는 줄을 매고, 작은 도랑에 가서 낚시질을 하는 사람들은 붕어 같은 작은 고기나 잡을 수 있을 뿐, 이처럼 큰 고기를 잡기란 힘들다. 이와 마찬가지로 작은 이야기를 꾸며서 높은 칭찬이나 구하는 사람들은 큰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다(夫揭竿累, 趣灌瀆 守鮒鮒 其於得大魚難矣 飾小說而干縣令 其於大達亦遠矣).<sup>1</sup>

1 방정요, 『중국소설비평사략』, 홍상훈 역, 을유문화사, 1994, p. 35.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임나라 공자의 낚시질 설화(장자, 잡편 외물 제26)에 들어 있다. “任나라 公子가 큰 낚시와 굵은 낚시줄을 만들고 오십 마리의 거세한 소를 미끼로 꿰어, 會稽山에 앉아 東海에다 낚시대를 드리우고 날마다 낚시질을 했으나, 1년이 다 되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커다란 고기가 그 미끼를 물어서, 낚시바늘을 물고 물속으로 들어가 치달리다가 다시 치솟아 올라 지느러미를 흔드니, 하얀 파도가 산같이 일어나고 바닷물이 일렁거렸는데, 그 소리가 마치 귀신이 우는 것처럼 천리 밖까지 두려움을 전했다. 任나라 공자는 이 고기를 잡아, 배를 갈라 말려서 魚脯를 만들었다.(중략) 그런데 후세에 이

앞의 구절은 홍상훈의 번역을 따른 것으로, 『중국소설사략』의 번역자 조관희가 “하찮은 의견을 치장하여 높은 명성과 훌륭한 명예를 얻으려 한다”<sup>2</sup>고 한 반면, 『중국소설비평사략』의 번역자 홍상훈은 “현령(縣令)”을 ‘작은 관직’으로 해석하는 일반적 경향에 대해 장자 시대에는 아직 관직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했다. 조관희는 ‘소설’에 대해 “이 말의 실제적인 의미를 고찰해 보면, 하찮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도술(道術)이 없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이른바 후대에 일컬어지는 소설과는 다른 것”<sup>3</sup>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때 소설의 ‘소’는 양적으로 적은 것보다는 질적으로 낮은 것을 뜻한 만큼, 장자는 ‘소설’을 도나 덕과는 거리가 먼 부정적 개념으로 여겼다고 할 수 있다. 천하를 돌아다니며 통치나 경륜의 방법을 가르쳤던 공자와 맹자 중심의 제자백가를 겨냥하여 소설이란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순자(荀子, B.C. 298?~238?)도 자신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사이비나 이단으로 몰아세우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는 『순자』 비십이자편(非十二子篇)에서 타효(它虺), 위모(魏牟), 진중(陳仲), 사추(史鱗), 묵직(墨翟), 송견(宋鉞), 신도(慎到), 전병(田駢), 혜시(惠施), 등석(鄧析), 자사(子思), 맹가(孟軻) 등의 학자를 비판하였다. 특히 타효(它虺)와 위모(魏牟)에 대해서는 “지금 세상에 사설을 꾸미고 간언을 꾸며 천하를 소란하게 하고, 간사한 속임수와 거짓과 왜곡된 자질구레한 방담으로 천하를 혼란시키면서 옳고 그름과 다스려지고 혼란한 것의 소재가 어디

---

르러, 작은 재주로 풍자를 일삼는 사람들이 서로 놀라워하며 그 이야기를 했다. 무릇 작은 낚시대에 가는 줄을 매고, 작은 도량에 가서 낚시질을 하는 사람들은 붕어 같은 작은 고기나 잡을 수 있을 뿐, 이처럼 큰 고기를 잡기란 힘들다. 이와 마찬가지로 작은 이야기를 꾸며서 높은 칭찬이나 구하는 사람들은 큰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任나라 공자의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는(역주:任나라 공자처럼 큰 배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함께 세상을 經綸하기에는 역시 크게 부족한 그릇이라 하겠다.”

- 2 노신, 『중국소설사략』, 조관희 역주, 살림출판사, 1998, p. 21.
- 3 같은 책, p. 21.

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sup>4</sup>고 혹평하였다. 순자가 타효와 위 모를 향해 제시한 사설(邪說), 간언(姦言), 율우(濔宇), 외쇄(鬼瑣) 등의 낱말은 수십 년 전 장자가 말한 ‘소설’의 유사어라고 할 수 있다.

바르지 않은 말을 가리키는 ‘사설’, 거짓말을 가리키는 ‘간언’과 달리 오늘날에는 잘 쓰이지 않는 ‘율우’는 거짓자랑을, ‘외쇄’는 허망한 이야기를 뜻한다. 오늘날 소설은 진선미를 갖춘 이야기라는 긍정적인 뜻과 함께 거짓말의 대명사라는 부정적인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대다수 독자들은 소설을 읽고 ‘이 소설은 가짜 이야기다’는 반응을 보이기보다 ‘듣고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물론 같은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독자의 감상력 수준에 따라 독서 후 반응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상식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어떤 수준의 소설을 읽고 또 어떤 유형의 소설을 읽느냐에 따라 독자반응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순자는 해폐편(解蔽篇)에서 장자를 포함하여 제자백가의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옛날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며 유세를 일삼던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가려진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학자들이다. 그 가운데 묵자(墨子)는 실용주의에 마음이 가려져서 상하·귀천을 분별하는 예의의 수식을 몰랐고 송자(宋子)는 과욕주의에 마음이 가려져서 소득의 가치를 몰랐으며, 법사상가인 신자(慎子)는 법률주의에 마음이 가려져서 어진 이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신자(申子)는 권세주의에 마음이 가려져서 인간의 지능의 소중함을 몰랐으며, 혜자(惠子)는 명사주의(名辭主義)에 마음이 가려져서 사물의 실질적인 면을 몰랐고 장자(莊子)는 무위자연의

4 최대림 역해, 『순자』 2판, 홍신문화사, 2009, p. 73.

假今之世 飾邪說文姦言 以澆亂天下 濔宇鬼瑣使天下混然不知是非治亂之所存者 有人矣.

천의 사상에 마음이 가려져서 인위적인 노력의 가치를 몰랐다.<sup>5</sup>

위모, 진중, 목자, 송견, 신도, 전변, 신자, 혜시, 등석 등의 전문이론이나 중심사상은 명예의 근거가 되었지만, 합리적 사고나 종합적 사고에 방해가 되기도 했다. 공자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맹자도 이단이고 주변이었으며, 순자를 포함한 제자백가도 이단에 속했다. 제자백가의 시대에는 각자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을 이단으로 몰아버리는 태도가 횡행했다.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한 개인이나 집단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인이나 타집단과 치열하게 싸우는 정치논쟁의 원형이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제자백가의 이론이나 주장은 당시에 치열하게 우열을 다툰 끝에 성패로 나누어지기도 했지만 오늘날 이들 이론이나 주장은 대부분 고전으로 읽히고 있다.

공자(孔子, B.C. 552~479)의 제자 자하는 “소도라도 꼭 볼만한 것이 있기는 하나 큰일을 당했을 때 이를 활용하려 하면 통하지 않을 염려가 많다. 따라서 군자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sup>6</sup>와 같이 소설 대신 ‘소도(小道)’라는 용어를 제시한 바 있다.

소도는 여러 각도의 해석을 맞는다. “소도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볼만한 것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멀리까지 따라간다면 집착할까 무서워서 군자는 그런 것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번역한 차주환은 소도를 “인류의 대도 이외의 농업·의술·점술과 같은 백가중기(百家衆技)를 말하는 것”<sup>7</sup>이라고 풀이하였다. “비록 소도라 할지라도 반드시 볼만한 것이 있다. 그러나 원대한 뜻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될까 두려우므로, 군자는 이를 하지 않느니라”고 번역한 이기석은 소도를 “한 가지 전문적인 특기”로 설명하면서 군자는 한 가지 전문적인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아

5 같은 책, pp. 336~337.

6 『論語』, 子張篇.

子夏曰 雖小道 必有可觀者焉 致遠恐泥是以君子不爲也.

7 공자, 『공자의 인생 수업 논어』, 차주환 역, 을유문화사, 2015, p. 327.

야 한다고 해석하였다.<sup>8</sup> 이런 주해들을 통해 군자는 학문을 바탕으로 도를 세우고 세상의 근본을 지키는 사람인 데 반해, 군자가 못 되는 사람들은 소도를 선택하고 그를 업으로 삼은 사람이라고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방정요는 “이 문장에서 자하가 말한 ‘작은 도리’라는 것은 농사꾼(農圃)이나 무당(醫卜)들의 도리를 말하는 것으로 군자들이 말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도리 및 자연이나 사회 발전의 법칙으로서 도리와 상대되는 개념이다”라고 하거나, “공자와 그 제자들은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하는(治國濟世) 학설을 큰 도리라고 여겼으며, 이것을 제외한 모든 잡설들은 다 ‘작은 도리’라고 여겼다”와 같이 소도의 제한성을 인정하면서도, “소설은 본래 기예백가(技藝百家) 가운데 구체적인 한 유파가 아니었으며, ‘작은 도리’를 소설과 연계시킨 것은 후대 사람들이 잘못 추측하여 만들어 낸 말이다. 그것은 아마 ‘소설’을 작은 도리라고 여겨야만 비로소 큰 도리와 상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말하며 ‘소도’는 소설의 어원이자 별칭이라는 속설을 부정하였다.<sup>9</sup>

하기는 도라는 말 자체가 원칙, 의무, 철리 등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 온 만큼 도와 반대되거나 타자개념이 된 소도도 사용자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속성을 지닌다. 당대의 중국에서건 후세의 한국에서건 소도를 추상어로 보는 시각과 구체어로 풀이하는 태도가 엇갈려 있다. 『논어』는 ‘군자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군자의 조건이라든가 당위성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이런 논의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 ‘군자와 소인 비교론’에도 힘을 기울였다. “子曰 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제1편 爲政)”에서는 군자와 소인의 원만함/편벽성을 비교하였고, “子曰 君子懷德 小人懷土 君子懷刑 小人懷惠(제4편 里仁)”에서는 군자가 덕과 국법을 생각하는 데 반해 소인은 땅과 혜택으로 상징되는 실리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子曰 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제4편 里仁)”는 군자는 의를 깨우치는 데 반해 소인은 이익에 밝다고 대비한 것으로, 바로 앞의 구

8 이기석·한백우 역해, 『신역 논어』, 홍신문화사, 2007, p. 424.

9 방정요, 앞의 책, p. 36.

절과 동일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子曰 君子坦蕩蕩 小人長戚戚(제7편 述而)”는 군자는 너그러우며 공평한 데 반해 소인은 손해를 볼까 봐 근심한다고 하였다. “子曰 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제15편 衛靈公)”에서는 군자는 자신을 책망하는 데 반해 소인은 타인을 책망하려 한다고 대비했다. “子曰 君子不可小知而可大受也 小人不可大受而可小知也(제15편 衛靈公)”에서는 군자는 작은 지식은 없는 대신 큰일은 맡길 수 있는 데 반해 소인은 큰일은 맡길 수 없는 대신 작은 지식은 갖고 있다고 비교했다. 공자가 말한 이 구절은 제19편 자장(子張)에서 공자의 제자 자하가 말한 “雖小道必有可觀者焉 致遠恐泥 是以君子不爲也”와 같은 뜻을 담고 있다. 공자나 자하는 소인들이 소지(小知)라든가 소도(小道)에 대해 오히려 군자보다 익숙한 데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공자가 인정한 소인의 “작은 지식”은 자하에게 와서 “소도” 즉 “작은 기술이나 지식”으로 변용되었다. 앞서 논한 대로 차주환이 “농업·의술·점술과 같은 백기중기”라고 풀이하고 방정요가 “농사꾼이나 무당들의 도리”라고 해설한 것처럼 생활하는 데 직접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공자는 소설의 원형으로 ‘소도’ 이외에 ‘도청도설(道聽塗說)’을 제시했다. 그가 “길거리에서 얻어들은 말은 덕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sup>10</sup>고 한 것은 길에서 들은 이야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도나 덕에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소도는 도청도설과 통한다. 공자는 문학을 학문의 연장선에 놓고 봄으로써 문학을 재도(載道)의 수단이나 계몽의 방안으로 여기는 입장을 확립하여 도, 즉 삶과 사회의 규범을 보다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에서 문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찾았다. 이러한 재도의 문학관은 공자 이후의 중국 문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조선 조의 유학자들에게도 전통이나 법칙으로 작용한 나머지 오늘날 우리가

10 『論語』, 陽貨篇.

子曰 道聽而塗說 德之棄也.

차주환은 “큰 길에서 듣고 작은 길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덕을 버리는 것이다”(공자, 앞의 책, pp. 307~308)고 옮겼고 이기석은 “큰 길에서 듣고 작은 길에 와서 이야기한다면 덕을 버리는 것이니라”(이기석·한백우, 앞의 책, p. 398)고 번역했다.

소설을 보는 시각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소설관을 빚어내기에 이른다. 또한 문학을 학문의 연장선에 놓고 보는 태도는 실록우위론(實錄優位論)을 촉진시키는 반면, 허구의 묘리에 대한 각성이나 활용의지를 오랫동안 외면하게 하였다.

『논어』술이(述而)편에서 소설을 암시하는 말로 ‘괴력난신(怪力亂神)’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은 공자의 제자가 “선생님은 괴력난신을 말씀하지 않습니다”<sup>11</sup>고 지적한 데서 나온 것이다. 괴력난신은 ‘괴력’과 ‘난신’으로 이분할 수 있지만 괴, 력, 난, 신으로 사분할 수도 있다. 차주환은 “선생님께서서는 괴이한 일, 힘쓰는 일, 난동질 및 귀신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sup>12</sup>고 옳겼다. 공자가 살았던 때 소설의 내용은 대체로 괴력난신의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공자가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자가 당시 소설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뜻이 된다.

공자가 말한 ‘소도’는 소가지도(小家之道)를 줄인 것으로, 또 순자가

11 『論語』, 述而篇.

子不語怪力亂神.

12 차주환 역, 앞의 책, p. 122.

『삼국유사』 기이 제1의 첫머리는 다음과 같다. “첫머리에 말한다. 대체로 옛날 성인은 예절과 음악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고, 인과 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다. 그 때문에 괴상한 일이나 힘이나 어지러운 일, 귀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일연, 『三國遺事』, 이민수 역, 을유문화사, 2013, p. 19) 그런데 이민수는 역자 주 2번에서 怪力亂神은 怪異, 勇力, 悖亂, 鬼神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규보의 『東明王篇』은 “세상에서 동명왕의 신이한 일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비록 배운 것 없는 미친한 남녀들까지도 제법 그에 관한 일들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이다. 내가 일찍이 이야기를 듣고는 웃으며 ‘선사(先師) 공자님은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이 동명왕 설화는 실로 황당하고 기괴(奇詭)하니 우리들의 논의할 바가 아닌 것이다’고 말한 일이 있었다”(이규보·이승휴, 『동명왕편·제왕운기』, 박두포 역, 을유문화사, 1974, p. 49)는 서술로 시작한다. 박두포는 역주에서 “괴(怪)는 요괴스런 일, 역(力)은 용력, 난(亂)은 인륜에 어긋나는 일, 신(神)은 귀신을 각각 이르는 데 이들은 모두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니, 공자는 이런 일에 대한 언급을 피해야 한다고 하였음”(같은 책, p. 51)이라고 설명하였다.

말한 소가진설(小家珍說)<sup>13</sup>과 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소가진설은 수준 낮은 학자들의 이상한 학설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소설로 대치해도 무방하다. 순자는 목자를 실용주의자, 송자를 과욕주의자, 신자(慎子)를 법률주의자, 신자(申子)를 권세주의자, 혜자를 명사주의자(名辭主義者), 장자를 무위자연가(無爲自然家)로 몰아 이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도라고 하지만 실은 모두가 도의 일부분(道之一隅)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하였다.<sup>14</sup> 소도는 순자가 지적한 실용주의, 법만능론, 권세주의, 형식주의, 천의사상 등과 같은 제자백가의 사상을 담은 것인지 아니면 목자가 드러낸 부지문(不知文), 신자(慎子)가 드러낸 부지현(不知賢)과 부지지(不知知), 혜자가 드러낸 부지실(不知實), 장자가 드러낸 부지인(不知人) 등과 같이 인간사회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에 소도라고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장자의 소설, 공자의 소도·도청도설·괴력난신, 순자의 소가진설·사설·간언·율우·외세 등은 공통적으로 소설의 ‘소’가 질적으로 낮은 것을 가리켰음을 일깨워 준다. 물론 그 후 환담(桓譚, B.C. 23~A.D. 50)과 같은 이론가에 의해 소설의 ‘소’에 ‘짧은 것’, ‘단일한 것’이란 뜻이 추가되었다. 동한인 환담은 『신론(新論)』에서 소설양식의 구성방법과 사회적 기능에 대해 “만약 소설가가 토막 지어진 작은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그것에다 비유를 취해 짧은 글을 짓는다면, 그 글에는 몸을 다스리고 집안을 정리함에 있어 볼 만한 것들이 있다.”<sup>15</sup>고 주장하였다.

13 최대림 역해, 『순자』 2판, 2009, p. 364.

故可道而從之 奚以損之而亂 不可道而離之 奚以益之而治 故智者論道而已矣 小家珍說之所願 皆衰矣.

14 같은 책, pp. 336~337.

15 小說家 合殘叢小語 近取譬喻 以作短書 治身理家 有可觀之辭.

위의 구절이 수록된 원서는 없어지고 『文選』 31권 江文通 雜體詩 ‘李都尉從軍’ 李善注에 보인다고 하였다(노신, 앞의 책, pp. 31~32). 여기서는 ‘合殘叢小語’가 ‘合叢殘小語’로, ‘譬喻’는 ‘譬論’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조관희는 『중국소설사략』의 원문은 “소설가”로 시작하였지만 본래 “若其小說家”로 되어 있어 “소설가와 같은 무리들”로 옮길 수 있다고 하면서 “소설가와 같은 무리들은 자질구레하고 짧은

앞선 인용문에서 “토막 지어진 작은 이야기들을 종합한다(合殘叢小語)”는 것은 소설을 만들기 위해 우선 소재를 모으는 일이 필요함을 지적한 것이며, “비유를 취한다(近取譬喻)”는 것은 소설양식의 유전인자인 상상력이나 허구성과 연결된다. “몸을 다스리고 집안을 정리함(治身理家)에 있어 불만한 것들이 있다”는 주장은 공자가 시인했던 소설의 순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치신이가는 오직 경사류(經史類)만이 할 수 있다’는 당시의 통념에 비추어 보면, 소설도 치신이가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환담의 생각이 충분히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소설의 사회적 효능을 치신이가의 측면에서만 논한 것은 공자류의 재도(載道) 중심의 문학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나라 때 낙부거사(羅浮居士)는 『신루지서(蜃樓志序)』에서 “소설이란 무엇인가? 大言과 구별해서 말함이다. 小에 대해 말하려면, 무릇 정확하여 변할 수 없는 도리나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이 순종하는 것, 그리고 漢儒들이 유가에 대해 해석한 경전과 宋儒들의 도덕 수양 등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일은 집안 식구들의 日用飲食의 왕래나 접대 등의 사소한 일이므로, 그래서 이를 일컬어 ‘小’라고 했고, 그 말은 한 구석의 남녀들이 자질구레한 한담이므로, 그래서 이를 일컬어 ‘說’이라 했다”<sup>16</sup>와 같이 ‘소’와 ‘설’을 따로 떼어 설명하고 나서 “가장 평이하고 가장 명백한 것이 바로 소설의 요체(最淺易 最明白者 乃小說正宗也)”라는 간명한 정의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소설은 의미가 있든 없든 길든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양식이라는 초보적이며 동서고금을 뛰어넘는 통념으로 이어진다.

기전체단대사(紀傳體斷代史) 형식으로 전한(前漢) 시대의 역사를 적은 『한서(漢書)』를 추려 『한서에문지(漢書藝文志)』를 완성하고 소설가와 소설

---

은 말들을 모아, 가까운 것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취해 짧은 글을 만들었으니, 자기 한몸을 수양하고 집안을 건사하는 데 불만한 말이 있었다”와 같이 번역하였다.(같은 책, p. 21)

16 최봉원 외, 『중국역대소설서발역주』, 을유문화사, 1998, pp. 342~343.

편목을 기재한 다음, 반고(班固, 32~92)<sup>17</sup>는 소설양식과 소설가의 원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오른편에는 소설 15가와 1380편을 기록하였다. 소설가는 대체로 패관에서 비롯되며, 소설은 향간에 떠도는 이야기와 길에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진다. 공자는 비록 소도라도 볼만한 것이 있기는 하나 큰일을 당했을 때 이를 활용하려 하면 통하지 않을 염려가 많다고 하였다. 그래서 군자들은 소도를 참고하지 않으려 하지만 없애지지 않는다. 마을의 소지식인들이 언급하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책으로 묶으면 잊혀지지 않는 법이다. 간혹 한마디라도 취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또한 나무꾼이나 미친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sup>18</sup>

반고는 『한서예문지』에서 유흠(劉歆)의 『칠략(七略)』 중 제자략(諸子略)을 인용하여 유가(儒家), 도가(道家), 음양가(陰陽家), 법가(法家), 명가(名家), 묵가(墨家), 중횡가(縱橫家), 잡가(雜家), 농가(農家), 소설가(小說家) 등 열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 중 볼만한 것은 소설가를 제외한 나머지 아홉 가(家)라고 하면서 소설가는 소도로 볼만한 것이 못 된다고 단정하였다. 중국의 사상은 노자·장자·열자의 도가가 중심이 된 ‘소극피세파(消極避世派)’와 유교가 주도하는 ‘적극용세파(積極用世派)’로 나누어진다. ‘적극용세파’에는 공자·맹자·순자 중심의 유가(仁義·忠恕·孝悌·禮樂), 묵자 중심의 공리파(兼愛相同, 節用行義), 등석·혜시·공손룡 중심의 명가(循名責實 明

17 방정요, 앞의 책, p. 39.

자는 孟堅, 東漢 扶風 安陵人, 典校秘書를 역임.

18 방정요, 앞의 책, p. 40에서 재인용.

漢書藝文志 諸子略 小說十五家 千三百八十篇序.

小說家者流蓋出于稗官 街談巷語道聽塗說者之所造也 孔子曰 雖小道必有可觀者焉 致遠恐泥是以君子弗爲也然亦弗滅也 閭里小知者之所及 亦使綴而不忘 如或一言可采 此亦蕪蕪狂夫之議也.